

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10 영남면 금사리 사도진성 설화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난 도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유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넣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의 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설화의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이다. 조선 시대 류공인이 이 곳에서 '어우야담'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원형일 수도 있을 고흥의 설화를, 스포츠동아가 격조 전해준다.



CLIP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 방면→한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매곡교차로에서 당곡마을·신정마을 좌측방향→연봉교차로에서 동강·병동마을 방면으로 우측방향 고흥로→연봉교차로에서 점암·연봉리 좌측방향→점암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도화·포두 방면 우측방향→천학삼거리에서 남열해수욕장·영남방면으로 좌측방향→만호삼거리에서 나도로·능정 방면으로 우회전→팔영로→사도진해안길

성 쌓으러 간 아버지...배 속 아들은 그새 열 살이 됐네



조선시대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선조들이 6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쌓은 사도진성은 고흥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현재까지도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긴다. 고흥(전남) | 김민서 기자 marineboy@donga.com

왜구 침입 막기 위해 쌓은 사도진성 축성 당시 전라도 각지 사람들 모여 임신한 아내 두고 구례에서 온 남자 홀로 아버지 찾아온 아들의 이야기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도마을은 바다를 낀 어촌마을이다. 마을 앞바다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작은 섬이 여럿이다.

도로에서 마을까지 진입하려면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2차선 도로를 10분쯤 달려야 한다. 굽이진 해안 길은 마을이 쌓아온 세월의 자취를 고스란히 전하는 듯하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사도마을은 '외딴' 어촌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이 외진 마을까지 왜구의 침입은 빈번했다. 지대가 높은 마을을 둘러싸고 진성을 쌓은 까닭이다. 이름은 사도진성.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사도진성은 1485년(성종 16년)에 착공해 1491년 완성됐다. 축성에만 6년이 걸렸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일까. 사도마을 주민들은 사도진성에 대한 단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예부터 남해 일대에서 손꼽혀온 사도진성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도진성...역사의 현장

사도마을은 고흥군이 지정한 마중길 제1코스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의 올레길 못지않게 수려한 풍광과 조망을 자랑하는 산책길이다. 사도진성은 마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와 산을 잇는 방식으로 축성됐다. 이 곳은 임진왜

란 당시 전라좌수영 산하의 4포(砲) 중 한 곳일 만큼 요충지로 꼽혔다.

마을의 광충북(60) 이상은 지난 세월 탓에 지금은 많이 훼손돼 드문드문 그 흔적이 남은 사도진성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다. 500여 년 전 만들어진 곳이지만, 이를 보존하는 책임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다.

광충북 이장은 "동네 사람들이 부역을 통해 진성 정비를 해왔다"며 "역사와 함께 하는 마을이라고 봐도 된다. 마을 뒤편에는 사도 봉화대가 있는데, 고흥 마곡산 봉화대와 함께 역사와 함께 남아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사도진성을 둘러싸고 내려오는 설화도 있다. 축성 당시 사도마을에는 고흥은 물론 인근 지역인 전라북도 순창 남원, 전라남도 구례, 광주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 그만큼 규모가 컸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구례에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고흥으로 온 한 남자가 있다. 사도진성 축조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 사이 구례에 홀로 남은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훌쩍 자랄 때까지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은 10살이 되던 해, 혈혈단신 아버지를 찾아 고흥으로 왔다. 기록에는 6년간 축조한 것으로 남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체감한 시간은 10년에 이른다느 의미다. 오랜 시간 쌓아올린 피와 땀의 결실이다.

광충북 이장은 "사도마을이 주요 군사 요충지였다는 사실은 이런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진성이 많이 유실된 이유는 50년 전쯤

인근 해창만 간척지를 만들 때 진성에 있던 큰 돌들을 빼 바다를 메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녀도나도 어려웠던 시절이다.

남아있는 사도진성을 찾는 길은 역사의 한 줄기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흥미롭다. 다도해의 비경을 마주하고 축성된 사도진성의 일부는 여전히 산능선을 따라 바다까지 뻗아 있다. 그 높이면 어림잡아 4미터는 족히 된다.

●사도마을 옛 이름이 '사두마을'인 까닭

사도마을이 가진 설화는 또 다른 이야기로도 이어진다.

사도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전영남(75)씨는 마을 설화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다. 그는 사도진성이 유실된 이유는 "해창만 간척지 사업 뿐 아니라 과거 마을에 큰 불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불을 두고 마을 사람들을 "하늘이 내린 불"이라고 부른다.

"옛날엔 사두마을이라고 불렀제. 뱀사(蛇), 머리 두(頭) 자를 써서. 마을 지형이 꼭 뱀 머리를 닮았거든. 60년 전쯤 마을에 큰 불이 났어. 그때 마을 사람들 전부 돼지를 키웠는데 불이 나서 그만 모두 타 죽었어. 한 도사가 나타나서는 뱀의 머리에서 돼지를 키우니까 화를 입었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사두'라는 지명을 사람들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은 전남영씨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다. 돼지가 마을에서 사라진 것도 그때부터다.

지금 사도마을 사람들은 앞바다에서 파래를 키우고, 굴을 따 생계를 잇는다. 고흥(전남) | 이해리 기자 go1024@donga.com

중국 위나라 왕이 수소문한 '여덟 봉우리'

■팔영산 설화

팔영산은 고흥군의 '영산(靈山)'이다. 사도진성이 자리 잡은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일대에서 올려다보면 그 위용은 더욱 드러난다. 여덟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산에는 유독 여러 설화가 모여 있기도 하다.

팔영산이란 이름이 만들어진 어원은 정상에 위치한 여덟 개 봉우리에 있다. 그 설화의 출발은 중국 위나라 때부터다. 위나라의 왕이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은 대야에 여덟 개의 봉우리가 떠오른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왕은

여덟 봉우리를 가진 산을 찾으라고 명한다.

하지만 중국 전역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동방의 나라'로 불린 조선의 최남단 고흥반도에서 여덟 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이 발견된다. 이는 고흥반도의 이름이 중국에까지 떨쳤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산 중심부에 돌출돼 솟은 여덟 개의 봉우리는 여러 설화를 만들었다. 유연봉, 군선봉 등 제각각의 이름이 붙은 봉우리 가운데 팔영봉에는 송팔웅 장군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고흥 사람들의 입으로 내려온 구전 속 인물인

송팔웅 장군이 백마를 채찍질해 하늘을 날았다는 내용. 그만큼 영험한 힘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팔영산도 수탈에 시달렸다. 일본은 한반도 정복을 위해 팔영산의 여덟 봉우리에 대못을 박으려 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팔영산을 지키는 송팔웅 장군의 힘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고흥(전남) | 이해리 기자

TIP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골프

열심히 일한 당신, 나눠라...따뜻함 퍼주는 골퍼들

최나연 급식 봉사·김해림 성금 기부 이보미 장학금·허윤경 난방비 지원 최경주재단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도 JDX·골프존 등 골프업계 나눔 동참

연말을 맞은 프로골퍼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최나연(29·SK텔레콤)은 올해 조용한 선행을 준비하고 있다. 최나연은 매년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기탁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올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장소를 옮겨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쿠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팬들과 함께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나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자) 회원이기도 한 최나연은 해마다 김장담그기 및 어린이들을 위한 컴퓨터 기증 등 나눔에 앞장서왔다.

'기부천사' 김해림(27·롯데)의 나눔



최나연

김해림

이보미

허윤경

최경주

실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상금의 10%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팬클럽들이 기금을 모아 연말 온정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모금액이 약 6500만원이다. 김해림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부산의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 500만원과 대형제습기를 전달했고, 8일에는 강원도청을 찾아 저소득 여자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용품을 기부했다. 나머지 성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보태는 팬클럽도 늘어나고 있다. 시즌이 끝난 뒤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보미(28·혼마골프)는 국내에서 짧은 휴식기 동안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중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에서 팬클럽 회원 약 150여명과 조출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진 이보미는 이날 지역 중학교 학생 4명을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10월 결혼한 '새색시' 허윤경(26)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1만원씩을 모금했다. 그렇게 모금된 500만원을 8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난방비로 사용해 달라며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허윤경은 2014년 에티오피아 아동을 위한 식수펌프 설치에 1200만원, 올 여름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기부했다.

미국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최경주(46·SK텔레콤)는 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 최경주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문화소외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행복할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9일 최경주재단의 장학생 봉사단이 경기도 용인의 지역아동센터 학생 10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PGA 투어 출전 관계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최경주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골프계의 나눔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JDX멀티스포츠는 7일 패션쇼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영등포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골프존유원재단은 골프 끝나후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초등학교 골프선수 20명을 대상으로 연간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동계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리 기자 na1872@donga.com

이경훈·이동환, 웹닷컴 투어 출전권 획득

캘리포니아토너먼트 14위·19위 올라 시즌 상금 25위까지 PGA 입성 기회

이경훈(25)과 이동환(28·이상 CJ대한통운)이 2017시즌 미국프로골프(PGA) 웹닷컴(2부)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경훈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윈터가든의 오픈지카운티 내셔널 골프장에서 끝난 캘리포니아토너먼트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븐파(72타)를 쳐 합계 8언더파 278타를 기록, 공동 14위에 올랐다. 이동환은 이날 4타를 줄이면서 공동 19위(합계 7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다.

웹닷컴투어는 캘리포니아토너먼트는 순위에 따라 출전 기회가 달라진다. 1위(이하 공동 순위 포함)에 오른 선수는 성적에 상관없이 2017시즌 웹닷컴투어 전 경기에 나설 수 있고, 2위부터 10위는 초반 12경기, 11위부터 45위까지는 초반 8경기에 나갈 수 있다. 이후 성적에 따라 출전순위가 재조정된다.

지난 시즌 웹닷컴투어에서 뒀던 이경훈은 상금랭킹 76위로 끝내면서 아쉽게 파이널시리즈에 합류하지 못했다. 전

경기 출전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건부 출전권을 받아둔 이경훈은 더 높은 시드 확보를 위해 캘리포니아토너먼트에 출전했다.

이동환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2015~2016시즌 PGA 투어에서 활약한 이동환은 페덱스랭킹 201위로 125위까지 주어지는 PGA 잔류에 실패했다. 200위 밖으로 밀려나 탓에 웹닷컴투어 시드마저 놓친 이동환은 캘리포니아토너먼트에서 기사회생했다. 45위 이하로 밀려나면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더 줄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웹닷컴투어는 PGA 투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 시즌 최종성적에 따라 상금랭킹 25위까지는 PGA 투어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 26위부터 75위 이내는 정규 시즌 뒤 열리는 파이널시리즈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파이널시리즈는 웹닷컴(상위 75명)과 PGA투어에서 밀려난 75명(페덱스랭킹 126위~200위)이 4경기를 치른 뒤 최종 성적(상위 25위)에 따라 마지막 PGA 출전 티켓을 준다.

주요리 기자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